

전남도, 국회서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논의

권향엽 의원과 공동 포럼서 K-배터리 공급망 육성방안 논의

정부 배터리 삼각벨트 구상 속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 공유

전라남도는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포럼'을 열고, 광양만권을 K-배터리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논의했다.

포럼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지자체 관계자, 기업, 대학·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28일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호남·영남·충청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를 구축해 호남을 핵심공물(원료)과 양극재 중심축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 산업정책 방향에 맞춰 광양만권을 국가 차원의 이차전지 원료·소재 생산 기지이자 신규 특화단지 후보지로 구체화하기 위한 육성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이차전지 산업의 국내외 동향(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및 육성방향(정기영 순천대 교수)이 다뤄졌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전략과 과제가 다뤄졌다.

전남도는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2023년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세급·규제 완화와 기반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전라남도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닦았다.

이와 함께 특화단지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산·학·연·관 협의체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정부 공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국회, 산업계와의 협의



를 강화해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향엽 의원은 "전남 광양만권이 대한민국의 K-배터리 공급망의 핵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국회 포럼은 배터리 산업 경쟁의 핵심이 '생산량'에서 '공급망 안정성'으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광양만권의 역할을 분명히 한 자리"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

지 공모가 내년 2월 27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오늘 논의된 의견을 특화단지 육성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양만권이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신규 국가산업단지 개발과 기업 유치가 본격화돼 기업 투자가 늘고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러한 효과는 전남 동부권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K-배터리 공급망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성호 기자

전남농기원, 국내 첫 흰색 동부 신 품종 '미당' 개발 수량성 높여 수입산 의존 높은 동부 원료 국산화 기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국내 최초로 흰색 껍질을 가진 동부 신 품종 '미당'을 개발해 수입산에 의존하던 동부 원료의 국산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동부는 콩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작물로, 주로 떡과 양귀 등 가공식품 원료로 활용된다. 전남은 전국 동부 재배면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대표 산지이며, 영광은 전국 최대 생산지로 꼽힌다.

그러나 국산 동부 생산량이 제한적 이어서 가공 산업 현장에서는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때문에 지역 특산품인 영광 모시잎송편에 사용되는 동부 소 원료의 90% 이상을 미얀마 등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미당은 국내 최초 흰색 껍질 동부 품종으로, 가공 적합성이 뛰어나 송편 소를 비롯한 다양한 식품 산업 분야에서 수입산에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당은 직립형으로 키가 54cm에 달해 기존 품종인 옥당보다 약 15cm 크며, 기계수확에 유리한 특성을 갖췄다. 단위 면적당 생산 가능한 곡식의



양인 수량성은 10a당 170kg으로 옥당보다 13% 높다. 수분 흡수율이 높아 가공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도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현재 미당에 대한 품종보호출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광군을 중심으로 농가 실증시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모시잎송편 뿐만 아니라 두유와 단팃묵 등 가공 분야로 활용성을 넓혀 산업화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품종 개발자인 최진실 전남도농기원 식량작물연구소 연구사는 "농가 현장 실증과 품종보호출원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농가와 산업계 안정적으로 품종을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전남도, SOC 국비 1조4천억원 확보로 교통망 혁신 가속

도로분야 5천600억원 반영...연륙·연도교 등 현안사업 속도

내년 확정 차기 국가계획에 대규모 신규사업 반영 총력



전라남도가 내년도 SOC 국비 예산으로 1조4천억 원을 확보하며 교통망 혁신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로써 전남도는 10년 연속 SOC 국비 예산 1조 원 이상 확보에 성공했다.

전남도가 확보한 국비는 총 1조 4천95억 원이다. 이 가운데 도로 분야 예산은 5천600억 원으로, 현재 추진 중인 고속도로

로 건설사업과 국도·국지도 확충사업,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고속도로 분야에서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광주~강진을 잇는 1단계 구간은 잔여 공사비 1천336억 원을 전액 확보해 2026년 11월 개통에 청신호가 켜졌다. 2단계 구간인 강

진~완도 구간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80억 원을 확보해 1단계 준공 이전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광주~완도 전 구간이 완공되면 완도에서 광주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2시간 10분에서 1시간 10분대로 1시간가량 단축된다. 이에 따라 전남 남부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은 물론 물류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국지도 사업에는 20개 지구에 총 4천140억 원이 투입된다. 대규모 연륙·연도교 사업인 압해~화원, 화대~백야, 비금~안태,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4개 지구에 2천635억 원이 반영되면서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확보와 함께 영광에서 목포, 여수, 부산으로 이어지는 해양관광의 핵심축인 '서남해안 일주 관광도로' 완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10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된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확장사업에는 내년도 정부예산 80억 원이 배정돼 조기 착수가 가능해졌다. 고흥~봉래 구간은 당초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대상이었으나,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통과되면 서 제5차 계획에 앞당겨 반영됐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는 전남도의 다른 주요 국도·국지도 사업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여력도 함께 확보됐다.

이와 함께 주요 국도사업으로 '고흥 벌교~순천 주암' 605억 원, '곡성 석곡IC~겸면' 309억 원, '화순 동면~순천 송광' 199억 원이 반영돼 도내 간선도로망도 단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지도 분야에서는 내년 착공 예정인 '담양 고서~창평'을 포함해 설계지구 2곳과 계속지구 3곳 등 총 5개 지구에 정부예산 106억 원이 반영됐다.

전남도는 2026년 확정 예정인 국토교통부 도로 분야 차기 국가계획에도 대규모 신규사업이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상 사업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7건, 23조4천억 원 규모(영암~광주, 고흥~광주 고속도로 등)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19건, 2조7천억 원 규모 등 총 26건, 26조 원에 달한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전남 핵심 SOC 사업이 정부예산에 대거 반영된 것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내년에 확정될 고속도로와 국도·국지도 국가계획에도 전남 현안이 폭넓게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광주시, 도시철도2호선 인근 소상공인 회복 총력

22일 도로 개방일 맞춰 광주시 공직자 공사구간 인근서 소비촉진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공사 인근 소상공인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총 119억원을 투입하는 '소상공인 및 상권회복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1단계 공사 구간 인근 23개 행정동에 위치한 소상공인 2만6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상생카드 발급 ▲소비 촉진 ▲자금 지원 ▲경영부담 완화 ▲대출 회복 등 5개 분야를 종합 지원하는 현장 맞춤형 정책이다.

먼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상생카드 특별발급 행사'를 실시한다. 행사 기간 대상지역 내 가맹점에서 상생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기존 10% 환급에 추가 10%를 더해 총 20%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소비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공사 구간 인근 상권의 매출 증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에는 총 64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또 도로 개방 당일인 22일 시청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하고, 전체 공직자들이 공사 구간 인근 식당을 이용했다. 앞으로 자치구, 관계기관으로 참여를 확대해 공사

구간 인근 상가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비촉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매일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에 구내식당 중식을 휴무하며,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 지역 소비 촉진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구내식당 휴무는 그동안 매주 2회 수요일(가족사랑의 날)과 금요일(지역경제 활성화) 식식에 적용했지만, 지난 4월부터는 월 2회 중식 휴무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며, 총 보증 규모는 500억원이다. 1700개사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1년간 3~4%의 이자도 함께 지원한다. 이 사업에는 총 53억원이 투입된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에게 1명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한다. 업체당 1~2명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총 10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다.

/신종팔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